
문서번호 : 16-04-사무-06
수 신 : 각 언론사 제위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송아람 변호사, 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5. 2.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전송일자 : 2016. 4. 29.(금)
전송매수 : 총 5매

[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시작한 촛불집회에 대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계속된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폭압적인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서 서게 되어 그 재판이 8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 과정에서 9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변론하였고, 2010년 촛불집회의 의미와 소송 경과를 담은 <민변 촛불백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8년의 촛불재판의 문제와 의미를 정리한 <민변 촛불백서Ⅱ>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이번 백서는 2010년 첫 번째 백서 발간 이후에 진행된 주요 사건의 변론기를 중심으로 기본권 수호에 앞장선 민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변에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 493건(687명)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기소된 촛불 시민의 약 18%가 무죄 판결을 받아 일반 사건의 무죄율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및 자의적인 법 적용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판결의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밝혀낸 것에 이 백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기념행사에서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좌담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5. 발간 행사가 열리는 5월 2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촛불집회가 가장 먼저 시작된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8년간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거리에서 촛불을 든 수많은 시민들,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인권활동가들, 진실을 위해 싸운 언론노동자들, 그리고 기꺼이 시민의 곁에서 인권의 수호자로 함께 한 많은 민변 회원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담아 이 백서를 올립니다.

6.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촛불백서 발간 목차

첨부2) 촛불보고 진행안

첨부3) 촛불판결 분석보고 요약

2016. 4.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첨부1) 촛불백서 발간 목차

C O N T E N T S

발간사

제 1부 쇄고기 촛불, 8년의 기록

쇠고기 촛불 일지
촛불 재판 판결문 분석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변론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민사책임
야간시위 헌법재판의 변론요지
언소주 불매운동 변론기
PD수첩 사건
촛불집회 참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건

제 2부 촛불의 의미와 집회의 자유를 위한 모색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 재판의 헌법적 의의와 영향
쇠고기 촛불 기소와 재판의 문제점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제 3부 촛불 이야기

촛불시민의 촛불 재판기 :
광우병촛불시위 과정에서의 재판 과정과 성과
인권활동가가 본 촛불 :
촛불의 저항, 민주주의에 자신감을 불어 넣다.

첨부2) 촛불백서 발간기념 보고대회 진행안

민변은 2008년 쇠고기 촛불집회로 기소된 시민에 대한 형사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촛불백서를 제작하고, 지난 8년간 진행되어 온 촛불 재판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집회를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2016년, 쇠고기 촛불집회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집회의 자유를 점검하는 뜻 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8년 쇠고기 촛불 백서 발간 보고대회

2016.5.2.(월) 14시

서울변호사회 조영래홀(광화문)

1부 촛불 보고대회 (사회: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인사말 : 한택근 (민변 회장)
- 촛불 경과 보고 : 송상교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촛불시민 687명에 대한 재판분석 결과 발표 : 이상희 변호사 (촛불 변호인 단장)
- 촛불 사진 / 영상 상영

2부 집중 토론회_쇠고기 촛불과 그 후, 촛불이 미친 영향 (사회: 송상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토 론 : 홍승희, 강연희 (촛불 시민), 안진길 (촛불시민단체), 엄기호 (학자), 박주민, 서선영 (촛불 변호인), 기자
- 주제1 : 2008년 촛불집회는 한국사회의 각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주제2 : 2016년 집회의 자유의 현실, 어떻게 지킬 수 있나?

* 팩트TV 방송 예정

* 오시는 길



광화문역 8번 출구 방향으로 이동,
광화문역8번출구 앞 횡단보도까지 약 11m
이동, 2개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KB
국민은행광화문역지점 방향으로 횡단,
조영래홀까지 약 31m 이동

* 문의 : 이수연 간사 (02-522-7284,
sylee@minbyun.or.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3) 촛불판결 분석보고 요약

I. 촛불판결 분석 대상 및 당사자

- 민변은 1,398명의 시민을 접견하였고, 939명의 시민을 변론지원함(약식명령 838명, 정식기소 81명).
- 이 중 총 493개의 판결문(피고인 687명)을 입수하여 분석.
- 1심에서 재판받은 687명 중 468명이 항소, 173명이 상고심까지 불복함.

II. 참가자들의 행위

1. 범죄 유형

- 집시법 위반(384명) 및 일반교통방해(589명)의 경합범(상상적, 실제적 경합 모두 포함)으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음. 집시법 위반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총 4건에 불과함.
- 차량 손괴, 공무집행방해, 공용은닉, 감금, 상해 등 집회 참가 이외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46건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6%에 불과.

2. 참가일

- 6월 25일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참가자(108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 8월 15일과 5일(각 72명), 6월 1일(52명), 6월 29일(45명) 순. 6월 25일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 관보게재를 의뢰한 날.

3. 참가 시간

- 공소사실에 기재된 참가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데 유죄판결을 받은 참가자가 49명에 육박.
- 법원이 범죄시간을 특정하지도 않은 채 유죄판결이 선고된 참가자도 141명에 달함.

III. 판결

- 유죄 565명(97%가 벌금형), 무죄 152명. 무죄 152명 중 30명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음.
- 기소된 인원의 약 18%가 무죄 판결을 받아 일반 사건의 무죄율보다 현저히 높음.

IV. 무죄 사유를 통해 본 인권침해 사례

- 집회·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 기소
- 집회·시위에는 참여하였으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집회·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체포되었으나 무죄 선고
- 부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하여 해산명령불응죄로 볼 수 없어 무죄 선고
- 연행과정에서 경찰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어 무죄 선고

V. 결론

- 판결문 분석 결과 촛불집회 당시 공권력이 무고한 시민을 부당하게 연행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됨.